

울산공업단지 시찰 기행(2)

안 인 모

아가씨 안내원의 도중 연변의 풍물을 설명하는 말씨가 태도가 어찌나 재미있든지 일행은 꽤 먼거리를 시간가는 줄 모르는 새 극동호텔 앞까지 다달았다 현관 앞에는 호텔측에서 우리들을 영접하러 너댓분이 쭉 늘어 서계셨다. 버스에서 차례로 내린 우리들은 현관을 지나 커다란 로비열의 휴게실로 안내받았다. 칸막이 없이 탁트인 휴게실의 안락의자에 자리잡은 일행은 삼삼오오 휴게실 탁자를 사이사이에 각자의 여행백이랑 바닥에 내려놓고 호텔 지배인님의 환영인사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먼저 먼길을 이렇게 찾아주셔서(극동호텔) 감사하다는 말마디를 서두로 호텔의 연혁과 호텔의 구조며, 단원들이 알아서 편리한 호텔안의 갖가지 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다음은 단원이 각기 두사람씩 유숙할 방을 지정받아 짐꾸러미에 붙일 극동호텔마크가 든 표지를 한장씩 받아서 백에 달았다. 지배인님의 환영말씀이 끝난뒤 일행은 각기 지정받은 방으로 담당 안내원을 따라서 서로 헤어졌다. 단원들이 지정받은 방은 3층에서 7층까지의 곳곳에 두사람이 한방 꼴로 차지했다. 필자의 배정받은방은 812호로서 7층에 있었으며, 그 왼편이 단장인 김진천 이사와 배원식씨 방이며 그 오른쪽은 당국에서 안내를 맡으신 김전이씨 방을 입을 나중에 알았다. 필자의 방은 전남, 정육진지부장님 같이 유숙하게 배정되었다. 두 사람은 담당안내원으로부터 자기방 열쇠를 받아가지고 812호실의 도어를 열었다. 들어서자 왼편엔 화장실, 오른편에는 목제 클로젯트를 붙여 놓은 좁다란 어푸로우취로서 칩침하길래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켜본즉 안쪽에 넓다란(5,6평정도)방에 침대가 두개 응접탁자가 두개, 그리고 그에 딸린 의자가 서너개 배치되었고 서성거려 오가는데 불편한 것 같지 않은 여유있는 방이다. 뒷쪽엔 스틸샴슈 및 스틸울거미의 유리건 출입문이 있어 낮동안 채광이 그만일것 같다. 처놓은 카텐을 걷어 올리고 밖을 보니 1m폭이 넘는 발코니가 있어 출입문을 열고 나가니 전망이 그만이다. 동봉쪽으로 바다가 보이며 흐린

씨끼라서 푸른 물결이 검푸르러서 음산하다. 아직 부슬비는 소리없이 내리고 있어 혼자만의 여럿이라던 어지간히 쓸쓸할 것 같다. 그러나 일행 30여명의 단체투숙이기에 이 호텔에서의 숙박은 즐겁기만 하다 바다 멀리서는 연방 밀려오는 파도와 함께 쇠아 소리를 안고 온다. “쇠아 철석…… 쇠아 철석……” 눈앞의 모래터 바닷가에는 부서지는 파도의 물결이 황혼속에 허영게 거품을올린다. 멀리 바다끝은 누리가 자욱하니 구름에 덮여 시야가 몽롱하며 태고 역겹속에서 유연히 검은 현자 그대로 어둠을 더해간다. 그리멀지 않은 바다 가운데 고기잡이 기동선인가 쿵쿵쿵 소리를 내며 눈앞을 가로질러 어더튼가 지나간다. 주위풍경이 과연 이 고장이름에 알맞는 바다와 구름을 인연짓는 “해운대” 한국 팔경의 하나로 잘도 꼴랐다. 철은 아직 9월이라 기운은 여전히 늦더위로 비오는 날씨가라도 금세 축축이 땀이 솟는다. 다소 피로를 느껴 옷을 훌렁벗고 욕실에 들어갔다.

소독필표지의 거울앞 유리컵이며 타올과 비누가 다 같이 새 것으로 기분이 좋다. 일이 있어 번거쪽으로 가보니 역시 소독필테이프가 가뵈하여 두껍을 붙여 놓았다. 이 호텔의 귀환손님의 행세로 호뜻하게 그 테이프를 끊었다. 바트룸에 한바 지 물을 가진 다음 막애를 끼워놓고 물 꼭지를 틀어 온수, 냉수 한꺼번에 조절을 맞춰 목욕물이 고일새 워선 면도질하고 세수하는데 벌써 피로가 풀리는 듯 하다 갖어온 새 치약, 새 칫솔에 울동안의 입속 열기가 사각사각 거름으로 중화된다. 솔질을 멈추고 아까 말한 그 유리컵에 찬물을 담뭍받아 너댓모금 양치질하니 입속이 개운하다. 바트룸엔 한 20cm가량 물이 고였다. 그런대로 들어가서 몸을 떼우는데 누운 몸에 수면이 찰랑찰랑 나쁘듯 모자랄 듯 시원치 않다. 그렇다고 하나잔뜩 물을 채울 생각은 나지 않는다. 쏟아지는 물줄기의 쇠와소리가 무슨 낭비만 같아서……. 잠 있다가 이내 물꼭지를 죄었다. 한 40°C 쯤이나될까? 뜨거운 물에 느린한 몸을 담가 사지를 땀이 노그려진 힘살을 매만지며 피로를 풀어본다. 욕실

안은 더운김으로 팍 차서 숨이막히는 듯, 시간이 흐름에 노출된 살갗에선 송알송알 땀이 솟아 금방 흘러 내린다. 타올로 연방 얼굴을 씻어내며 한증맛을 누려본다. 질식할듯 답답하든 것이 오히려 코가 뚫리는 듯 시원하다. 한 5분동안일까? 바트룸안에서 더움을 견디다듬 온흔한 몸을 이르켜 텅텅으로 나왔다. 이내 전신을 비누질해서 노근한 여진을 말끔히 씻어냈다. 텅텅의 더운 물을 마음껏 짹 짹 바가지로 꺼냈었다. 머리머 어깨를……. 맨 나중에는 찬물 꼭지를 틀어 헨들샤워로 시원하게 목을 감은 다음 신선인양 상쾌한 기분에 보드라운 큰 타올로 느긋한 목욕의 뒷마무리를 마치고 켈즈바람으로 욕실밖으로 나와 침실의 응접탁자 앞 의자에 앉아 탁자위의 선종기를 틀었다. 목욕뿔끝의 전신에서 내뿜는 반사열을 시원하게 날려본다. 창밖은 그새 어둠이 짙어져서 어기저기 전등불이 흰하게 비취온다. 한참동안, 망각이 흐르는데 반려동숙 같이 하실분 정육집지부장님이 어디가셨다가 이제 막 들어오셔서 목욕을하러 훑을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간다. 한참동안 땀을 드린 다음 무심코 탁자위에 있는 극동호텔 안내카드를 들었다. 두번접어서 네점짜리카드가 편지봉투만큼 크다. 색채인쇄로 곱다란 것의 내용은 호텔전경과 각종 시설의 내부를 하나 하나 찍어서 인쇄한 사진에 영어로 설명을 하였고 카드 한복판에는 국한문으로 이 고장의 내력과 이 호텔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여기 다시 올려보면 다음과 같다.

『韓國八景의 하나인 이곳 海雲臺는 溫泉場과 海水浴場을 兼하고 있는 國內唯一의 休養地이며 또한 遊興地이기도 합니다. 新羅時代의 有名한 學者 孤雲 崔致遠先生이 病療養次 이곳에 滯留時 너무나 優雅美麗한 景致에 感歎한 나머지 그의 號에 緣由하여 海雲臺라 불리운 傳說을 갖인 이곳에 位置한 極東호텔은 아래와 같은 特徵을 가지고 國內外 觀光客의 愛護를 받고 있으며 新婚夫婦의 蜜月旅行地로서도 愛用되고 있습니다.』

◇施設內容

- 호텔……7층 4,000坪(에레베타完備)
- 客室……韓洋式(120室) 別館(20室) 貴賓室, 洋特室 (투인, 다블), 韓國式特室, 韓國式普通室.
- 客室……T.V, 라디오, 浴室, 冷暖房, 防音裝置完備
- 大食堂……韓·洋式, 日本式, 中國式食事
- 結婚式場……大小祝賀宴
- 빠……優雅한 施設完備, 스키라운지(200名收容)
- 나이트클럽……國際水準의 最高施設, 專屬 FULL BAND 및 一流歌手와 舞廳團의 豸
- 韓國館의 古典音樂과 妓生의 特別接待

◇附帶施設

토이기탕, 大衆浴場(100名收容), 理容室, 美容室, 스타트미싱, 大小宴會. 會議室完備, 國際電話, 郵便, 外貨換錢, 國內外航空券販賣

◎附近重要施設案内

釜山空航……호텔에서 車便으로 5分間(釜山—후쿠오카空航便 45分)

골프장……호텔에서 步行 5分間』

이상으로서 이 호텔의 개괄적 파악은 될듯하여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러한 호텔에서 당국이 마련한 이번 시찰단의 부산유숙을 3박이나 누리는 영광을 입었다.

의자에 앉아 무료로 카아드를 보고서 이 지방의 유서에 깊은 감명을 받고 세삼 명승지임을 느꼈다 정육집지부장님을 욕실에 남겨둔채 혼자서 방을나와 에레베이터로 일층까지가서 호텔동쪽의 해변가로 나왔다. 부슬비는 좀 멎은 것 같아 거닐기에 좀 켈찮다. 어슴푸레 시야가 좁지만 배사장이 히끄무레 앞이트인다 서벽 서벽 물결으로 다가섰다. 좌야 철석 물방울이 안개로 번져 온물에 날라온다. 대한민국의 남쪽끝! 태평양에서 밀려온 물이 이곳 종점에서 기나긴 나그네길의 마즈막 발걸의 인사를 하나보다 좌야 철석…….

『손을 내밀어 배팔을 끄니 너의 인사는 작난구렁기 하동과 같에……, 철석 내 얼굴에 물방울만 튀겨……. 꼭마단 자전거 되돌아가듯 바귀를 물결에 실어 좌야 좌야 안녕히!』

몽고인증이 장백줄기를 넘어 배달 이땅의 태백줄기를 타고 따뜻한 남쪽으로 남쪽으로 보급자리를 찾아 찾아서 막다른곳 더 갈질없어 주저않은 곳 오오 네이름은 부산, 해운대. 여기 슬기롭고 어진 배달의 조상 자리잡아 가꾸고 키우고 아껴온곳 이고장! 아득한 신라의 석학 고운 최치원이 이곳을 어찌 그냥보고 넘겼으랴? 수려한 풍경에 감탄도 있었겠지?! 천지가 맞닿은 바다끝 조화에 황홀도 했었겠지! 훗날 그분의 호 “고운.(孤雲)에 연유해서 바다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해운대”라 이고장 이름을 불리게 되었다 함은 비록 전설이라도 실감이난다. 앞으로 부산이 세계로의 향도로 대한민국의 약동하는 공상업도시로 발전함과 신흥 울산이 이나라 중흥의 원동지 도시로서 발전하는데 따라 이곳 해운대는 모든 사람들의 어제의 벽찬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내일의 힘찬 활력을 되살려주는 휴식의 도시로서, 해외의 친구들이 관광하러 찾아드는 세계 굴지의 명승관광, 절호휴양의 도시로 부산, 울산의 찬란한 흥용과 아울러 함께 빛날 것이며 자랄것이다. 그러기에 그대도 던져진채로 되어 나가길 바랄 것이 아니라 관던이 다같이 지난날 발자취를 분석해서 오는 앞날은

인위일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과학스런 조사와 계획으로 과학스런 실철을 다해서 유감없는 도시로 키워야 하겠다.

틀리는 말로는 “구미사람들은 구릉지대에 집을 지으면 그 주위가 더욱 미화되고 환경이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주위환경을 망쳐놓는다”라고 하는데 역대로 가난하기만 한 탓도 있었겠지만 그 가난을 이겨나감도 사람이어늘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낳는 사람의 행동과 노력을 다시 분석하고 찾을 길을 찾아야 하겠다. 서울의 경우 69년도에 이나라 발전의 모습을 도로확장과 건물의 잇달은 신축의 모습으로 번도 발전되어가는 한 서울의 자랑을 느끼는 반면 그 우람찬 자랑모습에 비하여 작은 문제라고 할지도 모르나 한가지 예를들어 말하면 소공동 상공회의소 앞거리에는 높은 빌딩으로 꼭 채워져가는데 비례해서 포장된 차도 노면은 이것들 빌딩에 수용된 인원들의 것인듯 싶은 자가용자동차로서 노면 삼분의 2를 꼭 덮고 시간가는줄 모르게 장기정차시키고 있다. 내 상식으로 그곳이 도로이지 주차장은 아닐텐데 또한 그 도로가 뒷골목 한가한 도로도 아닐텐데 옆지도 양체도 도로를 넘어선 일반서민을 생각지 안은 그야말로 유아독존과 오만불손스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원래 그런 생각은 차를 세우는 분들도 갖지 않았겠지만 빌딩이 들어서고 그 빌딩에 올라오니 자연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의 이 결과를 누구에게 탓해야 좋단 말인가? 도시의 발전이 이렇듯 당장에 큰 모순을 들어내놓는 것이 라면 어딘가 무엇이 잘못된 것만은 틀림없다. 차를 갖어 그곳에 세워놓은 분들은 그런대로 참겠지만 보행으로 그곳을 다니는 사람이면 짜증을 안내는 사람이 없을게다.

비단 그러한 곳이 이곳뿐이라? 그것도 그 구역내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전 춘하추동 눈뜬시간은 늘 이모양으로 굳어버릴테니 아니 그이상 그도가 더 심해질 것을 생각하니 아찔하기만하다. 이 말은 무슨 서울시당국의 위정하는 이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다 웬만한 거리 거리의 건물이 다아 그렇고 도로형편이 점점더 뻗어나가도 시중 변화와의 환경은 점점 질식상태를 축진하니 이 일을 그대로 보고만 넘길 것인가? 자탄을 한다.

가슴을 두드린다. 신설도시계획도 좋지만 시중의 이 교통질곡상태를 타개할 우리들 건설스런분야의 과제과 층에서 무슨 비상대책위원회같은 것을 마련해서 위정하는 이의 도시계획실천시정에 좋은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현재의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및 관계법은 수년전의 일본법과 비슷한 것으로서 현

실점에서 불패는 불완전하고 미비스런 것이며, 서울의 모습이 여기 저기 7,8층정도 빌딩이 수삼개로 거개가 기껏해야 3층안팎의 건물로 주요 간선도로 옆에만 있었던 때의 것을 지금 20층 안팎의 건물이 여기 저기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며 기타 10층 안팎의 것은 전면 도로가 좁진 넓진간에 막들어서는 판에 전면 도로폭이 어떻고 하는 문제는 실지 문제에 있어서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 고층건물은 대폭 얼마간의 전면공지를 두어야 한다는 결단스런 슬기로운, 반론판단아래 사계관심인 사들의 여론의 귀일을 얻어서 조속히 입법화하여 적어도 앞으로 10년 이후를 내다볼 수 있는 산 법률의 기초,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켜서 뼈뺀 법의 공포로 세계로의 대한민국수도를 건설해 나가는데 착오없었으면 한다. 사람에 「비긴다면 뒤로 뒤로 살만찌고 위례양이다, 간장염이다, 고혈압이다 하는 사람에게 핑크 오바다다, 다이아반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감소한 의복이나 깨끗하고 균형잡힌 강건한 체격에 신진대사가 좋은 혈기왕성한 청년남녀와 같은 도시로 키워올리는 일대 영단이 관민 일심으로 뭉쳐서 해나가는 시기는 마는 이때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고층건물의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속에 수용되는 인원과 그 인원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통행하는 사람의 부피와 그들의 상당수가 갖이고 있는 자동차의 정차가 문제이며 따라서 고층빌딩의 높이는 이치음, 인공조명, 인공환기 등으로 채광환기에는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해택에 의존할 것 없고 다만 건물주위의 교통소통과 일단 유사시의 소방활동 기타, 매피소통 등을 무난히 치룰 수 있는 지면의 공간과 그 위를 덮고 있는 입체적 공간만 확보되면 높이는 건축사들이 보증하는 한도에서 어떤 한 도선 까지(지역마다, 다르게 구분)허용하는 입법이 있었으면 한다. 다른 한나는 고적등 문화재건물이 시중변화가 안의 것은 그 주위의 신축고층건물 때문에 그 시각적 관찰에서 물체의 비교 대조가 스케일의 휘바됨으로 웅장 화려가 초라하고, 좁은길 스텝게 영상된 내 관찰에만 고쳤으면 한다. 이러한 고적들이 문화재라고 온겨레가 떠바플때에 우리들은 그 고적가꾸기를 그 물체에만 국한해서 생각했고 그것이 놓인 자리의 주의 환경과 그 자리가 그 고적의 가치에 비례되는 넓이를 찾아야 하는때는 아랑곳없이 또는 무지의 탓으로 방치하여온 허물을 보아 넘길수 없다. 이것 역시 도시계획 및 기타관계법이 이와 관련하여 생각하고 기초한 흔적이 없었음을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하기에는 우리들은 다같이 어리석었다. 백을 이상의 목표로 삼고 전진하는데 아흔번의 잘못을 저질렀어도 나머지 열번의 정당시행을 위해선 뒤늦게나마 잘못이 발견

되었으면 곧 뜰어 곧히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믿기에
웨차본다.

관계법의 일대혁신을! 다시 말해서 50년대의 그것
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즉 서너날되면 70년대의 문
턱을 넘어설 이때를 즈음해서 앞으로의 이상으로는 서
기 20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때가서도 그 법으로 별차
질이 없는 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참신한 것으로 바꿔
보자 함은 망상일까? 그때라야 겨우 30년뒤인데? 유
사이래 보기도문 의욕과 패기에찬 지도자의 이상을 뒷
받침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관계법을 건축사인 우리
들은 그려보며 펼쳐보면 어떨까? 공상일까? 망상일
까? 경제분야 인사들은 낫잘 의견을 퍼서 많은 용납도
있을 줄 아는데 유독 우리건축사 분야는 우리가 못나
서 의견도 없고, 말도 없나? 우리들의 호소는 허공에
주머질인가 반응도 없고 듣는이도 없다. 왜 이 해운대
에서 이 말을 하려고 하니 저러한 이나라 팔경의 하나
가 저렇듯 서울의 소공동거리와 같이 될가 두려워서 어
려 꾸념을 하여 보았다. 지난 여름 북측의 자지방 해
수욕장을 T.V에서 비행기 순행하는 광경을 중계방송
할때 해수욕장 모래터위의 뒤덮인 인파를 보고 도시계
획과 건축문제에 결부시켜 생각해본 일이 있는데 아찔
하고 소름이 끼쳤다. 비록 해운대 뿐이라 여러곳의 이
광경이 어찌 도시계획과 건축에 관계가 없을소나? 이
나라 국토계획을 생각할 때 이제는 도시계획에 그치지
않고 농촌 전원일지라도 늘어나는 인구와 교통량을 감
안해서 취락계획도 도시계획과 아울러 세워서 신철해
야만 초가집 듬뿍지방에 뿔뿔뿔 마당길과 시궁창 또
랑이 동리의 집집을 뽕뽕 돌아나는 현실이 한국스런 정
서라면 활달이 없지만 도시 농촌의 격차가 어떻게 할
동안 좀더 노력한다면 그 원시스런 모습을 바꿔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는 물론 서울에서의 환지작업
과 같은 행정적 시책이 있어야겠다.

여기서 오해없기를 바라는 것은 취락계획을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이 취락계획의 필요
성은 그 전에도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해운대까
지 울동안 열차의 차창밖 전망에서 한층 그 절실함을
느껴서 이렇게 써 본다. 농어촌을 막론한 취락계획
을... 뼈저리게 갈구한다. 문화스런 국토의 실현을...

이런 저런 생각에 어둡숙 물결소리는 나의 상념을 부
질없는 것이라고 비웃는 것 같다. 발길을 돌려 시장하
기에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안은 동행회원들이 거의 식
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얘기꽃이 피었다.
뒤늦게 몇분과 같이 한식식사를 청했다. 우선 맥주를
청하는이가 계셨다. 갖어온 맥주를 서로서로 한접씩 권
한다. 주욱 함모금씩 맛있게들 들었다. 창문밖 잔디밭

의 전등불이 희미하니 여정을 돌군다. 꽤 마셔본 맥주
지만 지방 이 맥주는 맥주중의 맥주! 그야말로 별맛
이다. 친구들이, 즐거운 여행으로 같이 한국팔경의 한
고장인 이곳, 주위풍경이 선경인듯 한 해변 호텔식당
에서 이른밤 바깥 바람을 창넘어 잔디밭을 지나서 저
멀리 바라보며 심신의 상쾌를 흠뻑느끼며 내일의 보람
찬 단지시찰을 즐겁게 주고 받으며, 담소를 나누면서
마시는 이맥주! 순수한 목적을 앞에 놓고 말을 받고
말을 주는 이러한 경지가 일생에 과연 몇번쯤될까? 일
생동안의 깨많은 드링크이 이렇게만 순화되었으면 그
아니 좋을소나 오늘저녁 이뻐은 신선중의 신선! 신선
놀음인가 한다. 이렇듯 두어잔의 맥주맛은 뒤이어 날
려온 식사를 감절맛있게 먹게했다. 식사를 마친뒤 로
비로 나와서 제가끔 의출을하는이, 제방으로 가는이,
공동탕으로 가는이, 바깥산책을 하는 이등등. 서로 해
어졌다. 이렇게 해서 여행 첫날밤을 극동호텔 812호실
에서 내일을 위해 푹 쉬었다.

1969년 9월 23일 아침 부시시 눈을뜨니 옆의 침대에
선 벌써 부지런한 정옥진지부장님이 아침목욕을 하느
라 침구만이 제쳐 놓인채로 비어있고 욕실쪽에선 줄줄
목잔물소리가 들려온다. 뒤늦게 허둥지둥 세수랑 마치
고 샴쌍미 타이를 새것으로 갈아 입는데 창밖하늘은 오
늘도 흐리며 금새 비가 올것 같다. 식당에가서 아침식
사를 스프에 빵으로 간단히 마치니 오전 8시 45분이다.

안내 김진이씨, 담당 김진천이사의 출발정돈 독촉에
일행은 현판으로 나왔다.

뽕오취앞에는 어제의 그 배스가 벌써 대기하고 있었
다. 그런데 날씨는 아니나 다를까 부슬 부슬 비가 내리
고 있지 않는가? 모처럼의 일정이 이렇게 절석대는
게운치 않은 날씨일줄이야..... 할 수 없이 우산을 펼
치고 차에 올랐다. 운전수도 안내 아가씨도 어제의 그
분들이다. 빗속의 달림길을 아가씨는 어제와 같이 자상
히 친절히 설명해준다. 일행은 한결 같이 끄떡끔떡...

제일먼저 우리들은 동명목재상사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구내에 접어들면서 넓다란 대지와 준비하게 세워
진 공장에 그 규모의 큼을 짐작했다. 남쪽안은 검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접안 지대에는 원목 등나무가 동동때
워진 저목지로서 저앞에 방파제가 든든히 축조되어 있
다. 우리들을 태운 배스는 어떤 건물앞마당에 다달았
다. 건물과 건물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동명에서
나오신 분을 맞이하여 다시 어떤 건물로 향했다. 밖알
은 여전히 비가와서 질퍽거린다.

날씨타인지 원목을 짜르는 일 벗기는 일을 오늘은 원
다하며 베니야를 합판하는 과정부터 연이어 벨트 콤베
어로 운반하여 압착되어 나가는 광경이며 기타 검척

꿀다루리등 제품이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장내부 시찰이 끝난 다음 일행은 어떤 강당에 안대되었다. 양쪽은 서로 방문취지와 영접인사를 교환하고 공장측의 훈련과장이신 정명호씨의 공장의 규모 기타 생산품의 현황등 설문에 귀를 기울였다. 설명 내용을 두서없이 그 요점만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회사는 그 조직체가 주식제도가 아닌 개인기업체로서 그 사장님은 강석진씨이며 국내 최대의 합판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전종업원 강석진사장의 탁월한 운영지휘하에 일사분란 합판생산에 전력을 다하며 나아가서는 이 나라 수출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다.

※이 공장의 본격적시작 1967년도

사 장.....강석진(姜錫鎭)
 대 지.....13,000평 저목지 80,000평포합
 전 평.....25,000평
 공장규모.....단일공장 단위로선 세계 제 1 위
 능 력.....140,000,000S/F 매월 250,000장
 합판의 생산종류

1. Printed plywood (프린트합판)
2. Pre finished plywood (투명도장합판)
3. Laminar plywood (라미나합판)
4. fancy plywood (비장합판)

종업원 6,600명 교대제작업

생산품의 판로 { 국내내수 15%
 해외수출 85%

합판생산의 세계적 추세

1. 전세계 생산품의 50%를 미국이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그 수요가 부족되어 수입하고 있다.
2. 그런가닭에 우리 한국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동양에서의 대 미국수출 경쟁국은 67년도부터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2. 자유중국 3. 필립핀 4. 일본 | }으로서 이들 나라가 수출하는 전체 량의 50%가 우리 한국의 수출품이 다. |
|---|--|

월목의 수입은...필립핀과 말레이시아로부터 하며 장차는 인도네시아도 유망한 대상국이 될 것이다.

월목의 수출...라완, 세리야

금년도 수출목표.....\$4,500만

제품의 척수 및 규격

| 크 기 | 규 격 |
|-------|------------------|
| 4'×8' | 1/8" 5/8" 4.4m/m |
| 4'×7' | 270/1000" 1/2" |
| 3'×6' | 3/4" 1" |

제품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

접착제, 포르마린

대충 이상과 같은 설명 취지로 이 공장의 규모가 세계적이며, 그 기업운영의 의욕적이며 작업의 부단한 정진에 감탄하면서 한편 이만한 합판공장을 우리겨레가 움직여 나간다는데 자랑을 느끼고 이 동명회사의 "강석진"사장님의 됴됨에 존경과 찬사를 드린다. 훈련과장님의 말로는 이분 강석진사장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그밖에 사회봉사 사업도 크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나라의 B.B.S (Big Brothers and Sisters Movement) 운의 선구자라고 한다. 그 회사 이름대로 동녘이 밝아오듯 동명이여 길이 길이 발전하소서! 빛을 내소서! 이 회사의 앞날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일행은 이곳을 떠나 다음 차례인 연합철강으로 향했다.

이 회사의 공장 역시 동명목재와 같이 동명대지와 거이 인접한 해변가로서 2만톤급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갖춘 공장으로서 그 역사가 수삼년 내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냉간 압연식 철강 공장으로서 이제는 국내 수요의 철관을 거이 생산해 낸다고 한다.

제품의 특징은 두꺼운 강판을 일본 야하다제철에서 수입해다가 필요한 모든 종류의 철관을 압연해 낸다고 한다.

작업과정은 저어 합판공장처럼 많은 인원이 아니라 거이 자동화된 기계조작으로 적은 인원이 요소 요소에 배치되었을 뿐 이 공장의 총 작전실과 같은 Control Panel에 의하여 질서정연히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지붕트러스 밑에 커다란 클레인이 그 육중한 철판들테마리틀(눈으로 5,6톤은 뽀지한) 장난감 나르듯 자유자재로 이동한다. 여기서 뽑아낸 제품은 열간으로 뽑아낸 제품과 달라서 열간 제품의 결함(간단한 예를 들면 자동차 차체카바, 냉장고 케이스등 마감 도장을 해서 요철이나, 벗겨지는 일)을 제거하여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얻을 수 있다 한다. 이 제품의 판로실적으로는 월남에 수출을 하였고 중남미에도 하였다 한다.

건축재로서 아연도금 골철판으로서 상당한 수수를 채워주고 있다 한다. 아직 아쉬운 일은 그 원자재가 역시 철관으로 제품된 두꺼운 그것으로서 이것을 수입하여 들여와야 하니 섭섭하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일 있나? 그렇게 나가면 어느 때인가 원자재 제품도 여겨서 하게 되겠지? 입지적, 경제적 생각을 고려했을 내나름대로의 희망을 현실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상해 본다. 연합! 그 이름대로 모든 지혜와 재력과 정력을 연합해서 크게 단단히 뭉쳐 연합철강이 이 겨레의 공업발전에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찬란한 번영에

일익을 담당하여 공헌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기서 일행은 그 눈부신 이 나라 철강공업한분야의
요람의 모습을 대견히 생각하면서 고마운 각별인사를
주고 받으며 대기중인 택스에 몸을 실었다.

잠깐 별이 나는 듯 하더니 부슬비는 여전히 계속된
다. 시간은 벌써 오정으로 김건이씨의 인도로 우리들
은 부산시내의 마련된 장소로 점심식사차 떠났다.

×××, 푸짐하게 맛있게 부산별미를 일행 30여명은
남쪽향도의 특산을 마음껏 먹는데 콜레라의 위세가 부
산에서도 아우성이라 그 신선한 생선이 맛이 안난다.
여럿이 먹는 식사는 식욕이 괜찮아 배불리 다음을 위
해서 잘도 먹는다. 식사시중을 드는 아가씨 대어섯명
어디서 끌오고 끌왔는지 다같이 예쁘다. 여기 저기 객
지의 회포를 농으로 달래본다. 전네는 농에 생글 생글
응대가 아릿다워! 배도부르고 피로도 한숨들려 우리
들은 예정대로 부산시청엘 들렀다.

시장님은 마칠 작금의 폭우로 수계가 많아나서 현장
엘 가셨단다 상황실에 안내된 우리들은 마련된 이자에
줄줄이 정좌했다. 시장님대신 다른분이 영접인사와 부
리핑 설명을 하셨다. 실내는 금세 불을 끄고 슬라이드
로 부산시정 전반에 걸친 상황을 시정했다. 내용은 눈
부신 부산의 발전상이다.

이도시의 시정목표로서의 성격은 종합도시건설에 있
으며 그 세별은

- | | |
|---------|---------|
| 1. 항구도시 | 2. 공업도시 |
| 3. 상업도시 | 4. 관광도시 |

라 한다.

현 김덕엽시장님의 시정방침은

- | | |
|--------------|---------|
| 1. 세계속의 항도건설 | 2. 서민시정 |
| 3. 신뢰시정 | 4. 개혁행정 |
| 5. 돌진행정 | |

에 있다 한다.

69년도 서민중점시책으로서는

- | | |
|---------------------|----------------|
| 1. 서민아파트건설 | 2. 청소개혁 |
| 3. 급수확대 | 4. 흙탕길포장 |
| 5. 지하도축조 | 6. 시장민영화 및 현대화 |
| 7. 고지대 재개발 | |
| 8. 서민주택(15평이하) 건립지원 | |
| 9. 시정시찰(공개시정) | 10. 이동시정 |
| 11. 무료대서 | 12. 도시계획망전시 |

를 들었다 하며 그 실행은 착실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고 하며 부산의 현인구는 근 160만에 육박하고 있
다 한다. 도시전반의 발전상으로 보아 능히 위의 목적
이 달성하는 것으로 확신할만 하다.

서

부리핑 뒷글에 우리들 건축사의 사명과 포부를 퍼
부산시내 건축사들의 복지와 사회스런 대접의 향상을
지원하는 부탁을 부산시당국에 요청했다. 건축사의 의
사반영이 없는 도시행정은 훗날 어떠한 결함이 노출되
는 도시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를 노바심도 있어 우
리들 건축사의 존재와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인 건축사
의 적극활용을 호소하며 부산시 앞날의 영광스런 발전
을 기원하면서 부산시청사를 나섰다. 부리핑을 말아보
신 여러분들이 손수 떠나는 택스열까지 나오셔서 손을
들며 석별을 나누셨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20분, 일행은 다음 차체인 부
산시내 "가내공업회사"의 기업체공장시찰차 향했다.
날씨는 여전 부슬비로 차안밖이 습기에 묻혀 명쾌하지
는 않으나 아침에 떠나서 여태까지 움직이는 부산의 한
모습을 보람 있게 보아와 각자 다같이 자기 일인양 약
진 한국의 긍지를 느끼며 즐겁게 차중담화를 주고 받
는데 그전에 본회의 부산시지부장을 말아보셨든 일이
있는 부산지부 "신육강"회원님이 연변상황 설명을 흥
겹게 늘어 노신다. 점잖이 거친 목소리에 멋들어진 유
모어를 섞어가며 진지하게 설명하는 품은 제격 건축조
예가 깊으신 부산시지부의 베테란 아나운사따웁다. 농
담반으로 연변 곳곳에 토지를 그전에 헐값으로 산것이
시방은 이고장 발전과 더불어 경흥튀어올라 그 토지가
평강한 값이나간다 하며 당신도 부산에서 손꼽는 재벌
이 되었던가 그 말써며 채스튀가 여찌나 멋있든지 정
말인냥 환상에 잡힌다 '아주 빈말도 아닐테지.....'

지난 봄에 현상모집으로 부산시청사설계경기에서 당
선이되신 "신육강"회원님은 부산시청사 신축예정지 주
변의 가로망계획이며 인근지대의 전망을 알기쉽게 설
명하신다. 부더 당신의 창작의 결실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조속히 이뤄질 것을 기원한다. 일행은 동래, 해
운대 방향으로 가는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 저만큼 산
비탈에 떠엄떠엄 세워진 신축건물들을 신육강회원님이
가르키는 대로 바라보면서 가내공업회사의 연혁 대충
을 듣는다. 차는 곳 큰 길에서 좁은 길로 미쳐 가구정
리가 안된 지대로 들어섰다. 드문드문 채소밭이랑 여
기 저기 공지가 많다. 그러나 이곳도 평당 5만원이 넘
는단다 정돈이 안된 동티를 지나 안개가 자욱하건 산
밀의 가내공업회사 구내에 도착했다. 설명하는 이틀 비
릇해서 서너분이 우산을 받히고 차앞으로 마중나오신
다.

차에서 내린 일행은 위선 그분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이 회사의 연혁과 현황을 간단히 들었다. 여기 저기 우
뚝 우뚝 갖 세워진 건물들은 회사의 중견사원을 위한
사택으로서 날선한 조적조 슬랩지붕의 현대식 건물들

이다. 회사에 유공한 사원들의 주거안정 정착을 위해 이 회사의 후생사업을 중요시한 “지”사장님의 배려의 소산이란다. 현재 한 30채가 될듯한데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엔 이 회사 사장님의 커다란 야량과 앞날을 희망으로 이끌어 주는 기업활동의 기백과 기정력에 감탄할 따름이다. 이런 설명을 대충 들은 다음 그분을 따라 우리들은 어떤 건물안으로 들어섰다. 상당히 넓은 작업실안이 전면 홀로링 마루바닥으로 깨끗이 윤이나게 청소된 곳은 해외수출용 “웨터”편직공장임을 곳 아라차렸다.

현관에서 우리들은 그곳 여직공들이 가르키는 대로 런접으로 만든 덧신카바를 받아서 뒤집어 씌우고 차백 차백으로 뒤를 때렸다 각방에는 이름모를 “편직”기계가 수 없이 설치되어 기계마다 여직공들이 작업에 여념이 없다. 재료는 다같이 화학섬유로서 빨강, 파랑, 노랑, 하양등등 주로 부녀자용의 웨터를 곱게. 만들어 낸다 돌전을 자세히 드려다보니 감의 짜임새, 제품의 생김새가 어찌던 그렇게도 좋아볼까? 이만하길래 그 먼나라 앞선나라 서북유럽에서 “메이던 코리아”를 받아드리는게 아니겠는가? 이방에서 저방으로 일행은 경탄과 호기심으로 뒤따를 새 제품의 제작과정에 따라 자세한 설명을 듣는다. 다된 제품이라도 맨나중 검사에서 첫수의 틀림, 감의 더럽힘 이 발견되면 그것을 알아서 일출한 파아트르 되돌려 보낸다. 임금의 지출방법은 고정 급료제도가 아니라 각 개인의 능력 본위로 작업량에 해당되는 임금수여방식인 임금 소도급제를 실시한다. 그 장단점은 이 파당에서 당장무어라 말할 수 없으나 이 회사의 현재의 성황은 이 제도가 성공한 것 같다. 심신이 건강하고 부지런해서 착실히 일한 사람은 비록 20세 미만의 아녀자의 몸으로도 월당 2만원을 넘겨 3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린 여직공이 상당히 있다 한다. 반대로 입사당시의 포부와는 달리 심신의 결함으로 그만한 수입은 생각밖으로 되돌아 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 공장의 특징은 중견사원들의 아낙네들을 할당할 사택에서만 있게하여 이웃이 어쩔수 없는 사원 남정네들의 서로간의 말썽을 부리는 부인네들의 아지까지의 풍조를 탈피하기 위해 한가한 시간의 효용을 위해 그 중견 사원각자의 사랑스러운 아내들을 저어 많은 여직공들의 “파아트마스트레스”로 봉사케해서 이 기업의 조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한다. 남편은 회사의 중견이요 부인 또한 이 기업체의 발전에 기여함과 각 가정의 보다 부유한 기반을 세우며 혁명파 사치를 멀리하며 검소와 근면으로서 안정과 번영을 기도하여 충실히 대한민국 앞날의 국위향상에 이바지한다. 이 모든 것이 “지”사장님의 남과 다른 영

원의 실현이며 배달겨레가 검소하고, 인내스럽고 부지런한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풍조를 이끄는 선구자스런 노력의 소산이란다. 참으로 장한 일이며 마음껏 기릴 말씀을 웨쳐드린다.

이러한 상황은 공장시찰위의 부리핑때 들은 일로서, 우리들은 작업장시찰 맨 나중 단계에서 공장 2층인가 마지막 코오스에서 각종 “연사기” 앞에 뚫였다. 하이얀 실들이 멩그르르 실 감개에 일정하게 같은 속도로 감겨진다. 웨터의 감세인 원사를 제각기 알맞은 실로 뽑아내는 작업이란다. 이곳은 더러 남직공들이 많은데 공장전체가 여직공들로 일하는 유휴노동력을 흡수한 이 기업은 어딘가 평화적이던서도 곳곳이 한국수출산업의 커다란 현들을 잡으 것 같다. 공장시찰을 끝맞춘 우리들은 회사측의 안내로 지사장님의 개인주택이며 겸 의 객을 접대하는 커다란 회견실이 있는 건물로 인도되었다. 건물의 안팎이 수십년만에 완성된 것으로 짐작이 되는 이집은 현관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커다란용접실이 있는데 그걸 홀의 뒷벽 전면에 이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시한 전시실이 있는데 각양각색의 웨터를 골고로 안배하여 전시하는때는 서울의 일류백화점에서 볼수 있는 쇼윈도우의 마네킹 같은 것도 구비해서 제품을 걸친 것은 고객을 위해 얼마나 머리를 쓰는가를 생각해 한다. 설명하는 이의 말로는 해외의 저명한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만 하면 그 유치에 성의를 다해 이곳까지 초빙한다고 한다. 응접실옆에는 칠실이란 숙박에 불편이 없으며 회사 제품의 제시설명을 사장님이 직접하시며 매대거레를 백푸로 매듭짓는 단다. 그 치밀한 두뇌와 능동적인 기업활동의 정성스런 실천으로 회사발전에 전력을 다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부강시책에 커다란 공헌을 맡없이 실행하는 것을 느꼈다. 진지한 회사측 설명에 깊은 감명을 받아 우리 단원중 한분이 “지”사장님의 내력을 물어본즉 그 분은 6·25때 평양서 남하하신분으로 내외분 다같이 가진 고생을 다해가면서 오늘의 이 업적을 이루어 놓았다 한다.

전남매와 그뒤 한동안은 부산시내 노상에서 일반난민들과 같이 노점 영위도 하신 간고를 겪은 때도 있었지만 지사장님 내외분 합심으로 오늘을 이루어 놓았으며 이 회사의 경영방침의 특징은 그 인사시책에서 볼수 있는 것 같다. 지사장님은 원택 기독교 신자로서 거느리는 사람들을 혈육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가르치고 반면 사람을 채용하는데 인척기타 청탁으로 드리는 일 없이 지망해서 입사하는 분들을 학벌여하를 막론하고 한곳 부서에 고정 배치하는 일없이 각개 부서를 일정한 기간동안 골고루 전전 배치시켜 회사운영의 전반상

태를 널리 파악시켜서 회사운영의 핵심적 일꾼이 되게끔 이 기업체의 사람으로 양성시킨다 한다.

오늘 설명을 맡으신 이 분도 입사한지 수삼년째 되지 만 학교출신은 무역과정으로 입사한뒤 즉 한부서에서가 아니라 제작, 관리, 경리, 서무, 판매등등 골고루 로테이션의 길을 밟아 지금은 세일즈맨으로서도 자신이 있다 한다. 이분이 설명하는 말씀가운데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가내공업회사가 이곳 내지를 선택정확한 경로의 일화 하나라면서 하는 내용인 즉 원내 이 언덕을 포함한 뒷산은 그 옛날부터 전하는 말로는 원시증고스런 말로 험산이며 정상으로서 그 어느편가는 호랑이도 나타난 일이 있었으며 산 꼭대기에는 물이 가득한 연못이 있어 한 여름철이면 연꽃까지 피었다는 명산으로서 무속으로 굿도하고 산신령에게 제사드리는 행사도 있어 이 지방에서는 이름난 곳으로 오늘날에는 연꽃도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이 집을 짓든가 또는 무슨 인위스런터는 못잡는 곳으로 알려져 내려와서 5·16후의 우리나라가 변영합과 아울러 몇몇 돈 있는 분들이 공장대지를 물색해서 이곳까지 왔다가는 무당 또는 점치는 사람의 만류로 그 주위가 전망은 있어 보여도 저러한 무속, 점복술의 권위자의 말에 겁을 먹어 그 입수를 포기한 일이 여러번인데 마침 이 가내공업회사의 “지”사장님은 먼저 말한바 기독교에 독실한 분으로서 미신에 현혹됨이 없이 결단으로 이곳 정착을 작정하고 설사 미신의 말에 세인이 왈가왈부해도 당신의 성씨가 못지자 “泄”씨인 것은 연꽃이 피려면 못이 있어야 하는 이치로 내가 이터를 가꾸면 대성한다라고 하시면서 이터를 잡아 가꾸고 다들어서 오늘의 이성황을 이루어 놓았다 하며 곳곳에 “물”의 시설을 가꿔 용수는 물론 관상용분수로 꾸며서 환경미화에 또한 힘을 기울인단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뜻 있는 설명뒷끝에 회사측에서 배부하는 선물은 부녀용 스타킹 한켠에 식인데 상표는 “쌍미표” 서술에서도 부녀자들간에 넓히 보급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쌍미표” 스타킹은 지사장님부인께서 별도 책임하에 운영생산된다 하며 그분네들 내외분의 철석같은 단결과 사랑으로 저만치 값있는 나라바튼을 하는데 감탄한다. 설명하는 이외익살스런 설명인지는 몰라도 오늘 파칠 지사장내외분이 출타로 부재중이나 내방하시는 분들께 선사로드리는 이 스타킹은 지사장님부인께서 꼭 일러내려오는 간곡한 부탁으로서 선물을 받는 이에 꼭 전하기를 이 “스타킹은 각자 집에가시면 집에 계시는 부인에게 꼭 드리시라”는 것이었다. 세심한 그 사장님 부인에게 자애로운 감명을 받았다. 짓궂게 그 누가 나는 총각인데 어떻게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단원은

없었다. 한 두 사람 우리들중엔 총각도 있었는데…….

배경합과 호뜻한 심정으로 재미있는 설명에 무아지경으로 내놓은 커피잔을 비우고 뜻있는 선물을 봉투에 챙겨놓고 일행은 아쉬운듯 뒤인사를 주고 받으며 주섬 주섬 자리에서 이리나 바깥으로 나왔다. 구내앞 길가에 세워놓은 뺨스로 다가갔다 부슬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다. 온 여정을 빗속에서 보내나보다……여기 저기서 참은 것을 풀어보려 부지런히들 다녀와서 순서없이 차안으로 들어가 빈자리에 텅텅텅 자리들 잡았다.

제 2일의 시찰스케줄은 이것으로 끝을 맺었다. 시각은 오후 네시반, 일행은 여제의 보금자리 극동호텔로 달리어 보오취앞 도착은 다섯시정각이었다. 운전수아저씨 그리고 안내아가씨 감사합니다! 그럼 또 내일……. 안녕, 안녕히! 폭쉴세요. 여러분은 아가씨의 인삿말에 손을 흔들며 차에서 내려, 호텔안으로 들어섰다. 오늘은 골장 자기방으로 각자 다같이 일단해어졌다.

× × ×

오늘은 9월 24일 여정 제 3일째 날이다. 지난 밤 일찍이 취침한 덕으로 아침년도 일찌감치 들수 있었다. 덤비는 일없이 세수며 아침식사를 제때에 맞춰 출발시각에 침착히 필수 있었다. 날씨는 잠깐 비를 멈추고 흐린날씨에 가끔 구름사이로 햇살이 쬐인다.

그러나 아침방승때 일기예보는 이지방의 강우를 예보했고 덩달아 폭우주의보까지 곁들여 알려 주었다. 울산행 시찰의 오늘, 하필이면 비가 온다니…….

그런대로 대기중인 뺨스에 우산을 갖춰 올라탔다 운전수와 안내말은 아가씨는 어제 그분들이다. 해운대 동내지구를 벗어나 울산행도로에 나섰다. 길은 한결같이 포장도로로 비온 뒤라 바깥 바람이 시원하다. 연변좌우의 산들이 맑은 공기로 일행의 기분은 상쾌하기만하다. 가다가 군데군데, 지난 폭우로 길이 끊어지고 한 군데 교량이 교각이 침하되어 한 스펠노면이 처진곳이 있었다. 초행길이라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간다. 다만 안내아가씨의 설명으로 고개를 끄덕일뿐 저만치 왼쪽에 비뒤의 시내가 물결이 사납다. 성난 물결은 구비구비 거센파도를 바위에 부딪친다. 부딪치는 파도는 백옥같이 하얗게 솟구쳤다간 다시 제물줄기에 잠긴다 눈에는 넘실넘실 귀에는 썩아아…… 이 게울은 그 옛날 신라때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겠지? 여름철 장마때면 늘 이러했으리라…… 다만 달라졌으면 이길이 신작도로로 변한 그것뿐일?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기서는 적응이안 될 것 같다. 용감한 신라의 군사들이 이곳을 행진했겠지? 명장 김유신도 말을 달리었을게다 산천은 의구한때 세정은 달라졌어! 옛 사람의 말씀이 생각한다. 신라때는 수도 서라벌을 가깝게운 이

곳이 그때의 경지지방이었으리라? 여조 이후는 먼 남쪽 변방이라 다만 옛 신라를 그리는 고장이 되었다.

허나 이제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 2의 도시요 울산은 이 나라의 생명의 피를 솟아내는 산업도시로 등장했다. 그 옛날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그려보며 이 나라의 산업혁명을 이르고 있는 석유의 정유공장을 위시하여 70%의 농민을 안고 있는 우리들 국토에 식량을 비롯한 각종 농림산물의 증산을 위하여 세계 굴지의 비료공장이 들어서며 기타 연관부대산물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속속 세워지는 울산! 그 천연혜택을 받는 지리조건으로서 동남방향이라 수만톤급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이 점점 그 규모와 성능을 확장하고 있는 형편으로서 이제 이겨례가 저어 신라의 무열왕이 된 김춘추와 당시의 명장 김유신이 그 슬기와 지혜와 용단으로서 어질고 의롭고 씩씩한 백성들의 충성을 바탕으로 정립된 세나라 신라, 고구려, 백제를 같은 뿔줄을 이어받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배달겨레를 신라의 가치 밑에 통일을 이루었드시 이제 우리들은 장구한 세월동안의 혼미와 암흑의 장막을 거둬차고 오랫동안 맞은 겨레의 훌륭한 기수를 앞세우고 변영과 부강과 참살의 목표를 향해 "마라토너"가 그 최후의 승리를 향해 출발을 하듯이 그 도중은 다만 역주와 인내와 또한 모든 생각지 않았던 난관을 돌파할 스태미너의 보유에 지혜로서 이것을 극복하는 만반 심신의 준비와 작오를 어금니로 되써어 사지를 굴신하며 동체를 기관차처럼 매진하는데 온겨례가 박수와 깃발을 휘둘러 응원을 하며 요소 요소에서 목을 축여주는 시원한 물주전자와 만일의 부상을 치료하는 의료시야의 준비를 때 맞춰 갖춰주는 것과 같은 세심한 배려를 배부르시 두뇌와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온겨례는 이 마라톤 주자의 몸뚱이의 한 세포가 되어 군센 체력의 하나를 이루드시 한테 뭉치고, 심신이 약해 그렇게 못되는 겨례는 박수를 보내 응원을 하는 자세로 이 겨례의 힘찬 역주가 최후의 승리를 얻어 월계관을 머리에 얹어 세계만방의 여러 민족이 우러러보며 부러워하는 값진 영광을 누리 보려고 신라의 서라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저어 울산에 다가 우렁찬 공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키워가는 것이다! 지방 우리 일행은 그곳을 향해 달리고 있다. 좌우 풍경에 히히히 도취되는데 안내아가씨는 곳 잘 설명과 애교로 차내를 밝게 한다. 꾸불꾸불 가는 길엔 연방 다른 산줄기가 좌우에 나타난다. 역사는 길 있어도 사람은 논다해도 주변경으로 보아 신라 천년, 고려 오백년, 그리고 이조 오백년 다시 반백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것 같지가 않다. 신라 얘기는 경주에 가서야 불국사며 석굴암이며 동등을 보았을 때 비로서 머

리가 숙여져 느끼는 일이지. 이곳 울산엘가는 이 길가에선 한시간반동안의 뱍스길 거리지만 도모지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역사와 지방인사들의 설명에서만 수금이갈뿐! 이토록 조용하고 한적한 산간에 떠엄떠엄 촌락이 있을 뿐이다.

인구가 늘어 폭발할 지경이라는 세계 여론이 서울이나 부산에선 실감이나지만 이 차창밖 광경으론 어림없는 소리다 울산이 부산만큼 될대까지는 인구증가 운운은 아예 문제밖일 것 같다. 좁은 나라라고 하지만 빈땅이 여유만만하다. 이 길가를 알맞게 개화시킨다면 낙원은 얼마든지 이룰것 같다. 저어 "취스"사람들이 산간거이 90%이상의 국토를 관광 또는 세밀수공업국으로 그리고 태 발달된 화학, 기계공업국으로 키워 놓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슬기와 지혜를 다해 근로를 높이 바드는 풍조를 이르켜 노력을 다해 정진을 한다면 얼마든지 번영을 향해 발전할 소지가 갖춰져 있는 것 같다.

한참 가다 안내양래신 부산지부 "김택진"회원님이 연변풍물 설명을 맡으셨다. 지리, 산세며 이 지방명소를 소상히 환히 교수님 명강의의 경력을 뒷받침하듯 시원하게 알려주신다. 가끔 유모어를 섞어서 한바탕 우습을 안겨주시며 차내를 한결 즐겁게 해주셔서 멀리 서울서 온 우리들을 육친처럼 동지처럼 대하시는 품새 살 대한건축사협회의 전국 구성이 흐뭇하고 대견하기만하다.

이렇듯 일행은 꽤 먼거리를 지루함이 없이 울산시 역내에 들어섰다. 그런데 차창밖은 오는길 중간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한창내리고 있어 시야가 트이여되지 않는다. 즐기찬 비는 아니지만 차차 기세를 올리는 것 같다. 주위 풍경은 한산한데 신홍도시를 상징하듯 들어가는 길원편에 단지조성인가 넓다란 지역을 원통대지 조성을 해놓은 것 같다. 더러는 아직 불도져자국이 바라다 보인다. 시의 관문인듯 실은 곳에 로타리가 있고 공업단지 울산을 상징하는 탑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상 여상의 동상이 각각 두 사람씩 남상은 약진과 근로를 여상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 이란다. 아가씨안내원의 자상한 설명에 새삼 새출발의 약동하는 울산임을 느꼈다. 차는 곳장 구시내로 시칭을 향해 간다는데 신축시칭은 로타리 탑에서 바른쪽으로 저만큼 한창 시공중인 것이 바라다된다. 시내로 갈수록 길은 비좁고 흙탕물마져 된다. 아까의 그 로타리네거리 길은 신설도로에 아스팔트포장으로 신홍도시의 면모를 갖췄으나 현 시칭이 있는 근처는 장차의 도시 계획정리대상이 될듯 싶다. 뱍스는 비좁은 길을 돌아서 현 시칭앞에 도착했다. 빗속에 차를 내려 곳장 상 황 청취실로 인도되었다. 마련된 좌석에 차례로 자리

잡은 다음 곧이어 시당국에서 인사차 서너분이 들어오셨다' 방문과 영접의 인사를 시에서는 부시장님이 우리 일행은 김진천이사가 단장님으로서 주고 받았다. 인사가 끝난 다음 상황청취는 슬라이드로서 녹음과 함께 보고 들었다.

시청한 슬라이드의 내용은 별도로 배부받은 울산시 안내카아드에도 적혀 있지만 그 개괄을 여기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울산시 연혁

1. 삼한시대 진한땅
2. 신라시대 갈라화촌
3. 고려시대 흥터부울주(별칭 학성)
4. 이조 태종 12년 울산으로 개칭
5. 세종 19년 도호부로 승격(좌도병마절도사 주둔)
6. 1910년 면제 실시 울산면
7. 1931년 울산읍 승격
8. 1961년 1월 특정공업지구로 선정
9. 1962년 5월 울산시 승격(울산읍, 방어진읍, 하상면, 내현면, 범서면 일부, 능소면, 청량면 일부)
10. 1963년 9월 개항장지정

입지적 여건

1. 용지 총 8,022,300평에

기건설 13개 공장에 2,012,954평
 건설중 18개 공장에 1,774,381평
 건설확정 8개 공장에 710,209평
 공공용지 1,765,000평
 잔여지 1,759,756평

2. 교통 및 전력

철도...중앙선과 접속, 공장인입선 6개선...25.14km
 도로...부산, 대구, 밀양과 연결(경부고속도로 접속)
 산업도로, 폭 25m~50m 12개 노선 77km

해상...일본(추시)와 160km

발전시설 계획량 1,210,000kw

카스터어빈 150,000kw 60,000kw 68.8준공

영남화력 400,000kw 67.3기공

동해전력 660,000kw

3. 용 수

기개발 120,000m³/일 개발가능량 520,

기개발 120,000m³/일(사연제) 100,000m³/일 대화강
 취수탑 20,000m³/일)

개발중 50,000m³/일(배암제)

장래계획 낙동강인수(70년완공) ※톤당요금 4.96원

4항만시설

항역 13.2km² ※항면 폭 2km 장 6.6km

3,000톤~5,000톤급선박

(10~15척 동시 입출항 가능)

10,000톤~20,000톤급선박

(2~3척 동시 입출항 가능)

○수심 7~12m

○간만의 차 0.45~0.85m 평균 0.65m

○부두시설

제 1 부두 안벽 210m 20,000톤급 선박 접안

제 2 부두 안벽 240m 40,000톤급 선박 접안

(시설중)

이러한 천부의 좋은 자연조건을 갖춘 이 땅은 과연 대한민국의 앞날에 비약스런 발전을 가져다 줄 손길을 만한 곳임을 짐작케 한다. 이 공업도시의 현황은 먼저의 "입지적 여건"의 용지 난에서 밝힌바 그 총계획면적이 8,022,300평으로서 이것을 100%로 잡으면 건설 및 건설확정된 면적이 4,775,693평으로 59.5%, 공공용지가 1,765,000평으로 22%, 잔여지가 1,481,607평으로 18.5%에 해당되며 그간의 노력의 경과를 짐작할 만하다.

이러한 상황의 이 고장에 오늘날 그 건설이 완료된 공장은 다음과 같다.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석유처리, 석유류16종

영남화학주식회사 울산공장(요소비료, 복합비료)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울산공장(요소비료)

동양나일론주식회사 (의류용, 어망사, 타이아코트지)

동양합섬주식회사 울산공장(엑스란)

공영화학공업주식회사 (P.V.C. 가성소다, 염산)

태원물산주식회사 울산석고공장(화학석고)

조선비료주식회사 (요소화성비료)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부라운아스팔트, 슬벤트,

아스팔트전제)

대한제관주식회사 울산공장(골드랍)

인성산업주식회사 (골드랍)

주식회사삼양사 울산공장(설탕, 제빙)

한국전력주식회사 울산화력발전소(전력)

한국출판주식회사 울산공장(출판)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자동차)

한국알루미늄공업주식회사 (알루미늄잉코트, 합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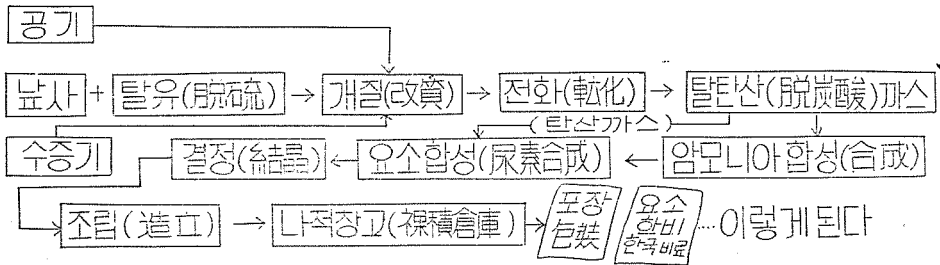
빙정석)

이상으로서 이것들 공장을 세우는데 소요된 투자는 먼저 의자로는 그 총계가 \$153,910,000에 해당하며 그 중 한국비료가 외자 \$42,000,000+내자 4,200,000,000 원으로 외자 투자액 회고를 점유하고 있으며 내자로는

그 총계가 21,357,173,000원이며 이중 대한석유공사가의 의자 \$37,132,000+내자 7,417,190,000원으로 수위를 찾아하고 있어 그 규모의 방대함을 직감케 하여 과연 약진하는 공업도시 울산이 눈에 선하니 비는듯하다. 이와같은 울산시의 현황 부티핑을 들은 우리들은 가슴 속에 빅찬 희망이 샘솟는듯, 두 주먹은 어느새 꼭 힘이 주어져 보람있는 울산시황을 흥미있게 슬라이드로 시청하였다 과연 1969년은 70년대를 보람있게 뜻있게 넘기는 특이 울산의 경우 요람기를 지나서 소년 아니 얼마 안남은 오는해 1970년은 성년기로서 마지막 해인가 보다... 부티핑을 받던중 울산의 김희중 회원님이 반갑게 들어오셔서 일행은 한층 기쁨을 더했다.

상황설명의 시청이 끝난다음 정중한 환송의 인사들이으며 계속되는 빛속에서 뷔스에 올랐다. 점심을 하려 미리 마련된 곳으로 향했다. 시청에서 가까운 곳인듯 차는 이내 어떤 요식점 앞에서 멎어 우리들은 다같이 차에서 내려 음식점 접대안내를 맡은 분들의 영접으로 넓다란 온돌방에 자리잡았다. 넓고 길다란 방에 잔치집모양 식탁을 가운데두고 양쪽으로 쭉 늘어 앉았다. 접대 아가씨들의 울산자랑이 대단하다. 우중이라 촉촉한 습기에 속이 출출한김에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들 먹었다. 식사뒤에 촌가를 이용해서 근방 다방에들 뿔뿔이 제각기 찾아가서 깃다를 즐겼다. 한참동안 이야기판이 벌어졌는데 뷔스의 경적소리가 요란하다 다

음행차를 재촉하는것을 지시 알아차리고 부랴부랴 되돌아와서 출발차 차에 올랐다. 당국의 김건이 씨의 안내말씀에 따르면 다음 시찰순차는 한국비료, 대한석공 울산공장, 그리고 동양합섬의 순서라고한다. 일행이탄 뷔스는 구시가를 벗어나 서북쪽으로 한창 시골길같은 것을 달리는데 도로의 노면푹이며 표면이 신자도로의 모습으로 건설한지 얼마 안되는것같다. 가다가 한두곤데 서울의 아파아트같은 건물이 새로 세워진것이 눈에 뜨인다. 구비를 돌고 언덕을넘어 흰히 아담하게 펼쳐진 단지위에 산뜻한 사무실 건물이 눈앞에 보인다. 그 바른쪽에는 수많은 원통철탑이 우뚝우뚝 하늘을 향해 솟아있다. 그렇다고 무슨 연통은 아니다. 그것들이 비료를 뽑아내는 각종시설이란다 정문수위실 앞을 지나 사무실정문앞 뜰에 다달았다. 마중나온 안내원을 따라 2층의 어떤방으로들어섰다. 현관 복도를 지나면서 이 건물이 현대식으로 요지음 한창 유행하는 신축건물중의 하나임을 직감했다. 이곳도 역시 슬라이드로 아니 영화로 공장상황을 시찰하였다. 몇마디 대화와 질의응답도 있었지만 거의가 다같이 기계적이다 하많은 방문객 응접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데는 결국 이럴수밖에 없겠지만... 화면에 비치는 그응대한 모습은 문의한인 나로서는 아연히 경탄할뿐 그무엇이 어떠한 것인지도 두지 형언키 어려울뿐이다. 그공정과정을 시청한테로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이공장의 개요약언력을 적어보면

★ 개요 ★

사 장 박숙희
창 설 1964. 8. 27
생산품종 요소비료
생산규모 연산(年) 330,000톤
종 업 원 900명
자 본 금 39억원
입 지 울산공업단지
공장대지 38만평

☆ 연혁 ☆

1964. 8. 27 설립

1965. 12. 10 정지공사
1966. 12. 31 암모니아 요소공장 완료
1967. 1. 6 시동식(운전개시)
1967. 4. 20 준공식

☆ 건설비 ☆

의 자 4,200만달라
내 자 42억원

☆ 공장규모 ☆

1. 주요시설
1) 암모니아공장 590톤\일
2) 요소공장 11 000톤\일 (기차의 화차로 35량분에 해당)

3) 원동시설

가. 순환냉각수(물) 427,000톤\일
원수(공급도입) 16,000톤\일

나. 기관시설 54톤\시×3기

다. 전력도입시설 154KV×55,000KVa

2. 부대시설

- 1) 공장 공장(工作工場)
- 2) P.E 제대공장(製袋工場)

3. 저장시설규모

- 1) 암모니아저장시설 700톤
- 2) 제품나적창고(裸積) 40,000톤
- 3) 제품포장창고(包裝) 16,000톤
- 4) 나프사 46,000톤
- 5) 방카C유 5,000톤

4. 주요시설 불량소요상황 100% 가동할때

- 1) 나프사 464톤\일
- 2) 방카C유130톤\일
- 3) 냉각수 427,000톤\일
(인구 1,503,000이 쓸수 있는것)
- 4) 동력 32,000Kwh
(1억원의 전기요금/월)

와 같이 된다.

이공장의 특징을 한가지 말하자면 종업원 900명의 평균연령은 28세로서 씩씩하고 젊은 20대의 청장년들이 대부분이란다 이렇게 정력이 팔팔한 인원들이 움직이는 공장에서 어찌 놀랄만한 생산량이 없을까. 그 여력은 국내의것을 충족하고도 해외로 수출을 한다. 이렇게 많은 종업원을 보유하면서도 노동조합의 결성이 없는것을 또한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오로지 나라의 발전을 위한 마음들의 발현만갈아 미덥지스럽다 나라발전이 어느만큼 궤도에 올라 안정이 되면 그때가서야 달리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시제같이선 나라사랑의 정수들만 모인 일꾼들만 갈아 찬사를 보낸다.

이공장에서 생산된 비료의 해외수출실적은 67년도에 파키스탄으로 20,000톤 68년도에는 베트남으로 17,000톤, 금년도인 69년초에는 다소간의 대남미 수출의 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저려한 방대한 생산의 조업을 그 동력조작을 거의 콘트롤룸에서 해낸다고 한다. 상황시청을 마친뒤 일행은 다시 옥외로 나와서 그넓은 구내를 뺄스로 한바퀴 돌아 걸도양만 시찰하였다 공장내부 관찰은 형편에 따라서 관람이 금지되어 그렇게 되었다 맨내중에 제품으로 가득찬 나적창고 안만은 들어가 보라고 하나 비오는때 질기도해서 그만두고 되돌아 사무실앞으로 갔다. 군데군데 비닐포장인듯한 요

소비료가 창고도 아닌 밖알에 노적된것을 보았다. 웬만한 비라도 염려없다는 설명이다. 곧 수송 반출을 기다리는 생산품이란다.

그 넓은 구내를 언제든 감시하는 소방시설도 갖추어 있어 상당히 혼련된 요원들이 늘 대기하면서 커다란 국보적인 공장을 지키고 있다 한다.

이런말 저런말 하나같이 경탄과 감지를 지닐 감격을 안고서 뺄스안에 앉은채로 이공장 안내인의 송별의 인사를 받았다. 못내 아쉬워하며 발길을 아니 뺄스머리를 돌려 다음 코오스로 향했다.

가는곳은 울산항구제 1부두란다 비는 얼마간 약해져서 부슬비로 변했다. 가는길의 좌우양쪽은 간사지인듯 밀풀이 즐렁거리는데 그북편을 이처럼 인공으로 도로를 축조한것같다. 오늘은 웬일인지 노상에 왕래하는 차량이 드물다 비가와서 그럴까? 울산이 앞으로 점점 발전하면 이길의 왕래가 활기를 띠우겠지... 어느덧 우리들은 부두에 다달았다. 다시황 부리핑배에 들은바 안벽210m 수심 7m~12m, 로서 20,000톤급선박이 접안할수 있는 그부두에 안내된 것이다. 현재 시설중인 제 2 부두쪽은 안벽240m로 40,000톤급선박이 접안할수 있다는 시설이라니 울산은 과연 공업단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춘 훌륭한 고장이다. 이렇게 좋은 항만이 그간만의차가 0.45m~0.85m로서 평균 그것은 겨우 0.65m라니 너무 금상첨화격이다. 부두에 내린 우리들은 마음껏 바닷공기를 들이켜본다 부두에는 한 5,000톤쯤 될까 외국배가 정박하고 있다. 저 멀리 두어척의 배가 어디론가 떠나가고있다. 항면 13.2km²의 이 항구가 부디 동양굴지의 은성한 앞날이 있기를 따음속으로 빌어본다. 하늘은 흐려서 멀리시야가 막려 다만 구름과 안개만이 사위를 덮어 푸른 물결이 아닌 검푸른 수면으로 가끔 밀려오는 파도가 소리를 물고온다. 여기저기 카메라에 기념포즈를 취하는 분들이있었다. 우리들은 훗날의 이지방 발전상을 이야기하면서 둘러놓은 뺄스에 몸을 실었다. 차는 다시 가까운 길을 얼마쯤 되밧아 달린다. 다음 예정지인 대한석유공장의 사무실앞에 도착한때는 오후두시반이었다. 일행은 어떤 강당비슷한 곳으로 인도받았다. 피차간 방문, 영접인사를 마친다음 곧 공장의 현황을 영화로 구경하였다 한비공장의 경우와 같은 절차에 새삼수감이 잔다. 울산의 공장건설중 한비와 더불어 그투자액이 내외자함해서 공전의 대규모공장으로서 다같이 이곳의 특산물 생산에 쌍벽을 이루고있다. 화면에서 본 무수한 원통치탑과 철제탱크는 우리나라의 유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모든 동력원의 생산및 저장의 커다란 그릇임을 상징한다. 정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는 저 멀리 중

동지역 “이라크” 남단에 위치한 페르사만을 남향으로 건너 쿠웨이트에서 수입하여 온다한다. 화전에 비친 복잡한 정제과정을 거쳐서 생산해내는 제품은 액화석유캐스, 휘발유, 나부사, 젯트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와 방카C유, 용제 및 아스팔트등으로 이지음 우리나라에서 하나같이 소중한 것들임을 알수 있다.

이러한 생산품을 제조해내는 이공장의 주요제조시설을 적어보면

| | |
|--------------------------------------|--------------|
| 상압증류장치 Atmospheric Distillation Unit | 115,000 Bbls |
| 접촉개질장치 Platforming Unit | 6,080 " |
| 나부사수축탈유장치 Naphtha Unifiner | 9,380 " |
| 등유및경유— MiddleDistillare Unifiner | 3,500 " |
| 액화캐스회수장치 Gas Concentration Unit | 6,300 " |
| 적유개솔린데록스 L.S.R Mercox | 3,745 " |
| 승아스팔트산화장치 Asphalt Oxidizer | 900Bbls |
| 원유탈염장치 Desalter | 120,000 " |

이밖에 부대시설로서

먼저 저장시설을 보면 제품탱크(Finised Product Tanks) 수 99기에 그용량은 4,072,405Bbls에 해당한다. 다음은 정유공장진행에서 쓰이는 정수장(Water Treating Plant)가 있어 1일능력 10,000톤을 처리한다 그리고 이 물을 한번씩 서버터지 않고 다시 냉각재생해서 사용할수 있는 냉각시설 Water Cooling이 1일 98,000톤의 가동능력을 갖고 있다. 다시 발전시설과 보일러시설을 보면 6,540KW 출산의 Electric Power Plant가 세워졌고 능력 2,900톤\매1일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유시설과 아울러 윤활유공장의 시설은 110,000드람\매1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빠트릴수 없는 시설중의 하나로서 해외에서 유조선으로 원유를 실어와서 받아들이는 장치로서 항만가운데에 시설해놓은 직경 12.5m의 부이(Buoy)로서 원유를 배에서 직접 쏟아넣는것이라한다. 이것이 두께에다가 이로부터 육상의 원유저장지역까지 바다속밑에 “해저파이프”를 2,100m길이로 시설했고, 그로부터 공장까지 4.5km 길이의 지하파이프를 설치해서 원유의 공장공급이 차량운반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파이프를 이용한 송유장치로 되어있다. 이것으로 이공장의 대강규모를 알수 있겠고 그밖에 공장중업원의 복지시설로서 아담하고 산뜻한 현대식 사택이 38동에 다시 B.O.Q 3동에 수용능력 246명의 기능을 갖춘 독신자 기숙사도 마련되어있다. 우리들이 상황청취를 한 방도 이 B.Q.Q 건물의 중업원의 휴게를 위한 오락실이라하며 이렇게 방대한 시설을 갖춘 이공장의 중업원수는 약870명이라하며. 이러한 규모의 이공장에서 하루동안에 처리하는 원유량은 115,000

Bbls(바렐)이라한다. 이공장의 창건에서 오늘까지 걸려온 발자취인 그연혁을 요약하여 적어보면

☆ 연혁 ☆

- 1962. 1. 26 정부에서 정유공장 건설계획안 각의의결
- 1963. 3. 12 건설공사 착공
- 1963. 12. 14 건설공사 완료
- 1964. 4. 1 정상가동개시 35,000(Bbls)바렐
- 1965. 5. 1 한국군에 대한 군납실시
- 1967. 5. 7 제1차 확장공사 완료 55,000바렐
- 1968. 4. 26 제2차 확장공사완료 115,000바렐
- 1968. 12. 14 윤활유 배합시설 준공

이러한 것으로서 영화르 현황설명을 들은다음 다시 배부된 카아드에 따라적어보았다. 이시설을 기본으로 해서 대한석유공사가 창립되고 그업무를 개시한후에 등사의 개요는

업무 : 석유제품 생산, 판매 및 기파 부대사업 경영

창립일자 : 1962. 10. 13

자본금 : ₩4,280,000,000

{자본구성은 대한민국정부 75%
미국 걸프회사(U.S. Gulf Oil Corporation) 25%

사장 : 박원석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4의5

공장 : 울산시 고사동 110번지

공장규모 : 1일 유류처리량 115,000바렐

부지 : 약 70만평 이상

과 같이 되어있다. 서울에서 유공마아크가 표시된 많은 주유소의 증가현상을 여기와서 보고 그추세를 짐작할수 있으며 수증이 간다. 석유! 과연 석유는 60년대의 종반은 모든 도시에서 냉난방의 연료를 탄에서 석유로 대체시키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도시의 모든 차량이 이에의존하게 되니 그 위력이 요원의 불길같은을 알았다. 지난여름 여수에도 제2정유공장인 락히제단과 미국칼텍스합자의 호남정유공장이 생긴것은 비록 그 규모가 울산의 것만은 못하더라도 국력의 증가는 물론 호남의 양항 여수를 기지로……. 공업진흥의 낙후가 염려되는 호남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도 참으로 발가운 일이며 대한민국의 비약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육십 같아서는 지상에서 보도된 남해밖의 우리대한민국영해안 대륙봉에서의 석유광 매장량여부조사가 “제발 천우신조로 팔팔 솟아나오는 실지 현상을 포착발견하는 결과가 있기를 비읍나이다!” “한님”이시여! 배달겨래, 대한민국국민들은 끝끝까지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스스로 돕는자를 도우신다는 한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을 히겠습니다

다!!라고 선의의 욕질을 갖어본다. 상상의꽃이 피어지기를... 현황취청가 끝난다음 우리들은 뱀스로 다시저어 아베펠쳐진 공장지대로 우뚝 세워진 철탑사이를 한바퀴 시원스럽게 재치있게 설명하는 안내원(공장측)의 말에 유익한 감명을 받았다. 한국데 드림통이 산덤이 처럼 쌓여진 곳이 보인다. 이제는 탱크차로 직접 대량수송하는것이 많아서 그전처럼 드림을 추력으로 운반하는울이 렷 줄었다한다. 끝으로 제품의 국내수송을 말하면 철도편으로 25% 추력편으로 8% 해상선박편으로 67%를 울산 원산지에서 각지방 공급지르 해낸다한다. 거창한 이공장시설의 시찰을 맞춘 일행은 다음차테인 동양합섬주식회사 공장으로 향했다. 다른 곳과같이 이회사에서도 예외없이 부티핑을 받았다. 여기서는 슬라이드르 설명을 들었다지만 정말 허한한 노릇이다 석유에서 숨을 만들고 실을 뽑아낸다는 것이다. 서술서는 말로만 들었지 생전처음이다. 부티핑이 끝난 다음 공장을 돌아보는데 길다란 공장건물이 길게 늘어서서 조급씩 새를 띄워세웠는데 건물앞 길다란 통로열에 송유관이 뚜껑열린 콘크리트 닥트에 부설되었다. 공정이 시작되는 처음단계에서 그재료는 공기와물, 그리고 석유이다. 이것을 도중에 압드니아, 푸로피렌을 섞어서 AN도노마중합, 로리마, 용해, 용제회수의 과정을 거쳐 여러가지 경로를 다시 변형되어가면서 나오는 생산품은 다시 뒷처리의 단계를 넘어서 절단 건조의 조작을 지나면 "스테이플화이버", "레귤러툼"이 되고 다른 한가지는 토우, "탐스텔플레", "벨키툼"이 되어나온다 한다. 이것들을 다같이 염색하여 여러가지 색깔의 제품으로 생산한다. 이것이 곳 요지음 매스롬에서 많이 선전되는 "엑솔란"의 제조공정이다. 이 "엑솔란"의 용도는 다양해서 카아드에 기재된 것을 보면

제면→이불솜, 히이파일→쇼루, 코트, 완구, 라아그, 직물이차물품→복지, 기성복, 옷안감, 속심지, 모포, 깃발감, 메리야스제품→내의, 양말, 자아지, 웨터, 장갑, 보아특수제품→카펫트, 모겟트, 다후, 레드 벨키메리야스제품→내의, 웨터, 양말, 장갑.으로 되어있다. 부티핑에서 들고본것이나 카아드에 적힌 이 회사의 연혁, 공장현황및 중요시설은 다음과 같다.

☆ 연혁 ☆

- 1963. 10. 28 회사설립
- 1965. 2. 16 일본안택산업주식회사와 차관계약체결
- 1965. 3. 23 매일차관정부러가
- 1965. 7. 5 기계발주 LG 발급
- 1965. 9. 10 건설공사 착공
- 1965. 12. 10 A.C.C와의 기술원조계약 정부러가
- 1967. 2. 28 기계설치공사 완료

- 1967. 3. 1 시운전개시
- 1967. 4. 20 공장준공식 거행

☆ 공장현황 ☆

- 1. 생산 규모 : 포티아크릴섬유(엑솔란DK형)6M/T/매일 생산 년산 1980M/T
- 2. 차관공여자 : 안택산업주식회사(일본)
- 3. 기술지도자 : 일본 엑솔란 공업주식회사
- 4. 건설비 : 외자 U.S \$ 3,800,000 내자 940,000,000원
- 5. 대 지 : 181,670평

☆ 중요시설 ☆

중합시설 원액수용시설 공기공급시설
 방사시설 증기발생시설 후처리시설
 냉동시설 가공실험시설 용제회수시설
 정수시설 폐품처리시설 TOP조제시설
 위와같은 시설을 갖춘 이공장의 기업체인 동양합섬주식회사는그 카아드에 영문으로 지역한 회사명은 Orienta Synthetic Fiber Co, 로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임용씨로 밝혀져 있다. 이회사가 내세운 포어 "새로운 섬유" 엑솔란! Exlan D.K Type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것에 "섬유계의 종아 엑솔란! 온국민의 섬유 엑솔란! 부드러운 촉감, 미끈한 스타일의 엑솔란!! 제품, 그렇게도 온통 T.V나 테디오 또는 신문으로 굉장히 선전하는 엑솔란이 여기서 이렇게 생산되는 줄은 미처 몰랐다. 석유에서 옷감이 나와!? 좀 있으면 먹을것도 나온다지? ... 아따... 세상은 이렇게도 달라져간다. 비로공장에서도 나무사를 원료로 쓴다고 했었다. 석유가 안들어간 공업이 거의 없는것 같은 환상에 잠힌다. 아마도 울산공업센터는 정유공장이 모든 공업시설의 기관이 되는것같다. 앞으로는 더욱 제3, 제4, 제5의 정유공장을 국내각처에 항구조건만 좋다면 계속 세웠으면 좋겠다. 석유에서 실을 뽑고 숨을 만들어 내는 것을 신기하게 허한하게 구경을 끝내고 우리들은 이번 시찰일정이 끝나는 것이다. 시청에서 배부된 카아드에는 울산시내의 건설중인 공장으로서 석유화학계열공장이12(나르타 분해의 11)를 위시해서 동해전력, 한국전력 영남화력, (전력) 한국신전개공업(중과석), 울산지물(화학설유지물), 대성목재(메 타올) 쌍룡양회(시멘트) 화신전업(축전지 4-H 리사지)등 각 회사의 공장이 있으며 그투자액의 총합계는 외자\$ 279,110,000 내자 27,279,214,000원, 이며 그것들의 데지총계는 1,672,084평이라고 한다. 이밖에 건설확정된 공장의 내용은 현대펠프(화학펠프), 조선방직(포리에스텔화이버의 1층), 유풍양곡(양공저장) 동창화학(카본부락)대 한와사(석유계스처리용기구), 신아화학(콤파운드의2층